

협회, 2003년도 사업계획 발표

- 벤처업계 결속강화와 재도약 기반구축에 역량집중 -

협회는 지난 달 23일 2003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벤처강국 2010 실현의 구심체’라는 비전을 설정한 협회는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재도약 원년인 올해 대외역량 제고, 회원서비스 강화, 벤처인프라 확충, 협회 재정건전화 등 4대 주요 추진방향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장흥순 회장은 “올해는 우리 벤처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협회는 연관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벤처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역동적인 벤처 대표단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4대 주요 추진방향 가운데 우선 대외역량 제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능별, 산업별 포럼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개발을 위한 기능별포럼은 정책, 문화, 홍보, 여성, 지방벤처 등 5개 포럼으로 구성하고, 벤처업계의 의견수렴 및 업종간 교류 등을 목표로 구성될 산업별포럼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바이오/환경 등 5개 포럼으로 구성한다. 또한 대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세미나와 벤처정책 연구사업 등을 추진한다. 벤처기업, 학계, 관련 단체, 전문가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벤처업계의 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매월 개최할 벤처세미나는 유관단체와 연계해 협회의 대외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회원서비스 강화사업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벤처기업 글로벌지원사업은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으로 국

내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 유망 전시회, IR컨퍼런스, 로드쇼 등에 참가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벤처기업 정보화 사업은 인터넷 기반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해 B2B, B2C등 전자상거래 구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위주 교육인 ▲맞춤교육과 경영혁신 아카데미, CEO섬머스쿨도 개최한다.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벤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해 협회는 먼저 지난해 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벤처코리아 2003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벤처코리아 2003은 벤처기업들이 재도약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집중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 DB의 재정비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 현황파악과 정책개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벤처넷을 보다 회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벤처넷 기반사업도 대폭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벤처기업의 자율적인 정도경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벤처기업윤리경영 확산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방벤처 활성화사업도 추진한다. 지방벤처 활성화사업은 지역 협회 또는 지역의 유관단체와 적극 협력해 지방 벤처기업 성장,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추진과제로 협회 재정 건전화 사업이 설정됐다. 이 과제에는 네트워크 에이전시 사업, 협회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 협회뉴스 •

협회, 한·이스라엘 벤처간담회 개최



▲ YOZMA Orna Berry 박사

협회는 대회의실에서 이스라엘 Gemini Venture Funds 초청 투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후원한 이번 간담회는 협회의 글로벌 지원센터에서 평가, 선정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Gemini

Venture Funds의 투자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더불어 한국의 벤처캐피탈 회사들과의 교류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적인 유대계 글로벌 펀드인 YOZMA 펀드를 설립한 DR. Orna Berry가 방한하여 국내 첨단벤처기업에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Gemini사는 주로 국내 통신 및 휴대폰 관련기술(무선인터넷, 휴대폰 콘텐츠 등…), 반도체 분야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적격 업체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Gemini사의 포트폴리오 회사와 국내 벤처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한-이스라엘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간 직접 교류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밖에도 이스라엘 첨단 원천기술의 실용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지원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의 초청은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협조로 이뤄졌다.



▲ 한·이스라엘 벤처간담회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개최



▲ DUCOM 듀크정 대표

협회는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수출 지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 제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인 진출전략에 관해 참석

자들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특별히 미국 연방정부의 주공급자인 DUCOM Inc.의 미국 본사 대표가 참석하여 미국조달청(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을 비롯한 연방정부기관의 구매정책과 절차 그리고 효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규모는 주정부의 조달규모까지 합하면 연간 약 5천억불 규모로서 우리나라 연간 수출규모의 3배에 달하는 황금 시장이다. 현재 미국 조달시장은 전체 조달규모의 25%를 제3시장에 개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문구류 부분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20여개 업체 50여명의 기업관계자가 참석했다.

협회 오형근 전무는 “국내 기업 중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해 성공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설명회는 국내 벤처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마련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미국정부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에 모인 기업관계자들